

본문 : 요한복음 8 장 21-30 절

제목 :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1. 하나님 아버지의 도제, 예수

요한복음 7-10 장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주는 장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의 메시아 논쟁이 많이 나옵니다. 이 논쟁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논쟁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율법학자들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율법에 도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절대 밀리지 않는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 태어나면서부터 말발이 좋았을까요? 예수님도 신이시니 당연한 걸까요? 예수님의 논쟁 상대자들은 그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Ph. D 학위를 몇 개 소지한 신학자들과 논쟁하는 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아무리 스크럼을 강력하게 짜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뚫어버리십니다. “당신 왜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거요?” 라고 공격해 오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온 것이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상대를 얼려버렸죠.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데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지혜로 돌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야리야리하고 연약한 이미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육체 노동으로 단련된 근육질이었을 것이고 눈매는 매우 강렬했을 겁니다. 거기에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셨죠. 신학자들과 논쟁에도 절대 지지 않는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본문 28 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을 그대로 한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 장 51 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육신의 부모님이셨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태도 그대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분이셨죠. 예수님의 당당함은 하나님께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감과 당당함의 이유입니다.

도제(徒弟, apprentice)란 maestro(master)의 기술과 기능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 배움으로 마스터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화 스타워즈에 보면 마스터들을

제다이라 부르고, 제다이가 되기 위해 수련해 가는 apprentice 들이 등장합니다. 마스터들에게는 포스가 있고, 그들의 인사는 "Force be with you"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끊임 없이 해 오신 겁니다. 아버지의 도제로서 근거리에서 직접 배우신 것이고, 예수님의 포스는 바로 그 순종과 배움이 싸여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 장의 메시아의 노래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이 구절은 주님의 종이 어떤 순종을 보여주는지를 노래합니다. 4-5 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 백년 전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입니다. 주님의 종인 메시아가 이렇게 행할 것이란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을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대로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셨고 포스가 넘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뺨을 맞는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신 것이죠.

2. 나를 보내신 분과 나는 동일하다

오늘 본문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나를 보내신 분"** 이 말씀에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3 장에서 8 장까지 다음 구절이 있는 곳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분 / 나를 보내신 아버지 /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 하늘에서 오시는 이 / 위에서 온 분 / 독생자"** 이 말들은 모두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보낸 이(the sender)'와 '보냄을 받은 이(the sent one)'를 같다고 보았습니다. 창세기 24 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노총각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찾아 오라고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권한을 전부 늙은 종에게 주면서 신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보낸 이와 보냄을 받은 이가 같은 경우입니다. 보냄을 받은 이는 전권대사(Plenipotentiary)로서의 파워를 갖고 보내지는 것이죠. 보내는 분이신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이인 예수님이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시자는 계시되는 자와

같다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자신을 계시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보내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파라오와 상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 뭡니까? 출애굽기 3 장 14 절 말씀의 하나님 이름을 “나는 곧 나다” 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이라 번역합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옮겨 놓은 70 인경(Septuagint)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저희가 지난 주에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면서 사용했다는 말인, “ego eimi (ἐγὼ εἰμι)”입니다. 본문에서도 24 절과 28 절에 ‘내가 곧 나’라는 말에 작은 따옴표가 표시되어 있죠? 그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ego eimi(ἐγὼ εἰμι)”입니다. 출애굽기 3 장에 ‘ego eimi’는 파라오 앞에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예수님이 ‘내가 곧 나’라고 말씀하시는 맥락은 자기가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자기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자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예수나 보낸 자인 하나님이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 이런 말을 하는 맥락은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와 동등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이 의미하는 첫번째 뜻입니다.

3.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나를 보내신 분’ 또는 ‘위에서부터 왔다’라는 말의 두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 장부터 10 장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주요 내용으로 전개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신 분, 하늘로부터 왔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등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나를 보내신 분, 하늘로부터 보내진 이, 위에서 온” 이런 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피파송 의식’을 나타내는 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예전 설교에서 ‘하늘로부터 보내진 분’하면 떠올려야 하는 이사야 말씀이 있다고 한 적 있죠? 이사야서 55 장 10-11 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부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의 사명은 땅을 적시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이 사명을 다하고 다시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의 사명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여 이뤄드린 후 돌아올 것이라는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설명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부여 받은 전권대사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터 왔다.’ 또는 ‘독생자’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는 절대적 순종을 전제로 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기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려는 단단한 결심을 나타낼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세상 죄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고, 나아가 모든 인류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이 뜻을 100% 순종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8 장 29 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55 장 11 절의 말씀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라고 이르신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28 절에서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진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요. 인자가 높이 들려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들어 못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들어 올려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자신의 뜻을 순종한 아들에 대한 보상이 바로 높이 들려 올리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 덕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그 자리에서 순종을 누적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을 그의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죠.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세상 죄를 지시고 묵묵히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 순종의 연습을 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밀착 순종하였습니다. 지난 주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미완료 현재 진행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신 공생애 기간에도 왜 새벽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철저한 도제식 훈련을 통해 이뤄진다고 믿습니다. 전공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련의 과정을 거치잖습니까? 수련의 때는 교수님들을 밀착하여 따라다니며 배우며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교수님 가까이에서 실험하는 것을 지켜보며 도제식 훈련을 마쳐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구요. 제가 커피를 배운 것이 10년이 되어 갑니다. 2015년에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 받았는데, 중국에 만족스런 커피가 없더라구요. 그때부터 커피를 배우기 위해 친구 바리스타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팬에다 커피를 볶는 것을 보여주며 로스팅을 배웠습니다. 한국에 잠깐씩 들어갈 때마다 그 친구의 카페를 방문하며 커피 드립하는 법을 배웠죠. 아쉬운 것은 한 6개월 정도만 매일 가서 배웠다면 지금쯤 저도 내로라하는 바리스타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무엇보다 커피를 훨씬 더 깊이 즐길 수 있겠죠. 어느 한 분야의 마에스터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밀착하여 따라다녀야 하고 순종을 쌓아 가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매일 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순종이 누적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열매를 맺고 하늘로 돌아가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100% 순종한 이후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듯,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보내신 분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결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세대의 중심 죄악을 지고가는 어린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대속을 이제는 우리가 재현(representation)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만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독생성자급의 순종을 이 세상 속에서 행해 주시길 기대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만큼 많은 어린양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중심 죄악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음란과 쾌락과 독점과 배타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악들에 참여하지 않는 독생성자급의 순종을 representation 할 어린양들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독생성자급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 땅 위에 이뤄가는 것입니다. 어린양처럼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순수한 청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양심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청년들과 노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5.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함

목사님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 있습니까? 그냥 대충 하는 길은 없나요?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하죠? 하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9 절이 준다고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당당함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독생성자급의 순종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난 주 lectionary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백 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마가복음 10:29-30).”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재산까지 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것은 독생자급의 순종을 말하는 거죠. 이런 순종을 일삼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을 건데, 천국에서 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보상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상 뿐만 아니라 당당함이 생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든든한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딴습니까? 옛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도 있듯이 가진 것이 많아야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지갑이 두둑해야 어디 가도 풀리지 않고 자심감이 넘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주는 든든함보다 더 큰 든든함과 당당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돈이며, 자동차며, 집이며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은 존재자(beings)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자들을 만드신 존재 그 자체이시죠. 저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필요하시면 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존재 자체이신 분이 함께 할 때 우리 삶에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든든함이 주는 당당함으로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해쳐 가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든든함은 세상의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왕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바랄 게 무엇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 알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일상에서 빛이 되십시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스터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순종을 누적해 가십시오. 포스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아니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